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비교

임 양 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금(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

전 경 숙(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인증참여과정에서의 어려움, 평가인증의 효과, 평가인증 필요성과 운영의 적절성,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차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로 지역(도시, 농촌)과 시설유형(국공립, 민간, 가정)별로 할당표집하여 총 306개의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1명과 각 보육시설당 보육교사 3명으로 총 1,224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중 591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하였으며 결과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보육시설장은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61.0%)과 평가인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감(59.0%)을 주요 어려움을 제시한 반면,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76.6%) 외에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영유아 보육에 소홀한 점(4.9%)을 들었다.

둘째, 평가인증 효과 인식에 있어서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보다 영유아 안전보호를 위한 관리 강화($t=-2.05, p<.05$)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증가($t=-2.36, p<.05$)에 있어서 평가인증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평가인증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시설장과 교사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평가인증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장보다 현장방문관찰 절차($t=-2.70, p<.01$)와 평가지표 교육($t=-2.87, p<.01$)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평가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육시설장은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63.0%)을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교사는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68.8%)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본 연구결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하여 보육시설장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가인증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와 늦은 퇴근은 보육시설장과 교사 모두 공감하는 내용으로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 업무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준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또한 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